



13일 제주 핀크스골프장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 발렌타인챔피언십 1라운드 경기에서 갤러리들이 최경주의 18번홀 마지막 퍼팅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앤서니 김 '상큼한 출발'

4언더파 공동 3위 최경주 1언더파 40위

발렌타인챔피언십 1R

한국에서 열리는 골프대회에 처음 출전한 재미교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이 첫날을 기분 좋게 마쳤다.

앤서니 김은 13일 제주 서귀포시 핀크스 골프장(파72·7천345야드)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 발렌타인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4개를 골라내며 4언더파 68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늦깎이 골퍼 황인준(34·토마토저축은행)도 보기는 2개로 막고 버디 6개를 잡아내며 4언더파 68타를 쳐 공동 선두 미코 일로넨(핀란드)과 토니 칼로란(호주·이상 5언더파 67타)을 1타차로 뒤쫓았다. 그러나 세계랭킹 5위 최경주(38·나이키골프)는 버디 5개를 잡았지만 더블보기 1개, 보기 2개를 하는 바람에 1언더파 71타를 쳐 2007년 브리티시오픈 우승자 파드리크 헤링턴(아일랜드)과 함께 공동 40위로 1라운드를 마쳤다.

특히 7번홀(파4)과 9번홀(파5)이 아쉬웠다. 최경주는 7번홀에서 두번째 샷을 그린 오른쪽 역세



앤서니 김이 4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에 빠뜨려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한 끝에 2타를 잃어 버렸다.

또 9번홀에서는 세번째 샷을 할 때 갤러리들이 누른 카메라 셔터 소리에 뒤땅을 치는 바람에 까

다로운 벙크에 빠뜨리는 등 고전하다 보기를 범했다. 최경주는 "7번홀 언플레이어블 상황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남은 홀에서 성급하게 경기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1번홀에서 시작한 앤서니 김은 전반에는 버디 1개를 잡는데 그쳤지만 10번홀(파5)에서 1타를 줄인 뒤 16번홀(파5)과 17번홀(파3)에서 연속 버디를 골라내며 상위권으로 뛰어 올랐다.

앤서니 김은 "처음에는 경기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후반부터 몸이 풀리면서 아이언과 드라이버샷이 잘 됐다"며 "내일은 초반부터 버디를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인준도 먼거리 퍼트나 홀로 속속 빨려 들어 간데 힘입어 패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안정된 티샷과 절묘한 퍼트로 전반에만 버디 4개를 잡은 황인준은 후반에 강풍 때문에 티샷이 다소 흔들리면서 몇차례 실수를 범했다.

11번홀(파4)에도 7m짜리 버디 퍼트를 넣어 상승세를 탔던 황인준은 12번홀(파4)에서 티샷이 페어웨이 벙커에 빠졌고 그린 위에서는 1.5m짜리 파퍼트를 넣지 못해 첫 보기를 냈다.

황인준은 14번홀(파3) 버디로 단독 선두로 오르기도 했지만 18번홀(파4)에서 맞바람 때문에 두번째 샷을 그린 위에 올리지 못해 결국 1타를 잃고 말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갑자기 획 지나가고
숲에서 튀어 나오고
샷 할때 셔터 누르고

유럽프로골프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출전한 최경주가 매너없는 일부 갤러리들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최경주 갤러리 때문에 '깜짝'

13일 제주 핀크스 골프장에서 개막된 대회 첫날 최경주는 재미교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 크리스 디마르코(미국)와 같은 조에 편성됐고 이 대회 최고의 흥행카드였던 만큼 200여 명의 갤러리들이 몰렸다.

3번홀(파4)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자세를 취하던 최경주는 티 그라운드 바로 밑으로 갤러리 한 명이 확하니 지나가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다시 자세를 잡았던 최경주는 이번에는 페어웨이 왼쪽 숲에서 튀어 나온 갤러리 때문에 다시 어드레스를 풀어야 했다.

다행히 3번홀에서 버디를 잡은 최경주는 8번홀까지 버디 3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1언더파의 성적을 유지했지만 9번홀(파5)에서 다시 갤러리의 방해로 받았다.

세번째 샷을 날리는 순간 바로 옆에 있던 관중이 잇따라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최경주는 뒤땅을 쳤다.

볼은 그린 앞 벙커안, 치기 힘든 라이에 빠졌고 최경주는 결국 보기로 돌아와야 했다.

최경주는 제주 대회를 앞두고 "좋은 날씨가 계속돼 멀리서 온 외국 선수들이 즐겁게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날씨 뿐 아니라 갤러리들의 매너도 최경주의 걱정거리가 된 셈이다.

■ 베이징 가는 야구드림팀은?

서재응 '0순위' 이승엽 미지수

베이징올림픽에서 메달에 도전할 한국 야구대표팀은 2006 월드컵이볼클래스에서 4강 신화를 쓴 드림팀에 필적할 최강 선수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대표팀은 지난 12일 대만 타이중 인터컨티넨탈 구장에서 계속된 베이징올림픽 최종예선 5차전에서 약체 독재 12-1, 7회 콜드승을 거둬 5전 전승으로 단독 선두를 지켰다. 대표팀은 이날 대만이 호주를 5-0으로 물리치면서 향후 경기에 상관없이 본선 티켓이 주어지는 3위를 최소한 확보 본선을 밟게 됐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수확한 이후 8년 만이다.

대표팀은 미국과 쿠바, 일본은 물론 본선 막차를 탈 게 유력해진 캐나다와 대만 등에 맞서기 위해서는 선발 투수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다.

메이저리그에서 국내로 돌아온 서재응(KIA)도 0순위 영입대상이다. 안정된 건트 물이 전매특허인데 일단 국내 무대에서 얼마만큼 기량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KIA 이용규와 한기주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타자 중에서는 거포 최희섭(KIA)의 출전 여부가 관심사다.

두통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동계 훈련을 치르지 못해 우려가 일고 있는데 이승엽(요미우리)의 출전 여부에 따라 그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승엽은 아직 본선행 참가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올해도 뭔가 보여 주겠다”

SK 이만수 코치 퍼포먼스 공언

지난해 '팬티 퍼포먼스'로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이만수 수석코치가 올 해도 '깜짝' 퍼포먼스를 공언했다.

이 코치는 13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시범경기에 앞서 "이번 시즌 홈 3연전 전 경기 매진을 달성할 경우 무엇보다 보여 주겠다"고 밝혔다.

퍼포먼스의 종류는 아직 고민하지 않았지만 조건이 달성될 경우 주변의 아이디어를 얻거나 팬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4월 10경기 안에 문학구장에 관중이 가득 들어차면 속옷만 입고 그라운드를 한 바퀴 돌겠다는 공언을 한 뒤 실제로 5월26일 KIA전에 민원 관중이 들어차자 약속을 지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손영민 "아직 몸 안풀렸네"

3.1 이닝 8안타 4실점 패전 마운드 난조 두산에 2-8 패

■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타이거즈가 호민 홈 신고식을 치렀다. KIA는 13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시범경기에서 마운드 난조로 2-8로 패했다.

한화, 삼성과의 원정 4연전에서 3승 1패로 승승장구 하던 KIA는 앞선 경기에서 활약을 보이던 투수 손영민과 임준혁이 부진해 6점

차로 대패했다.

선발로 나온 손영민은 4회 선두타자 채상병을 삼진으로 잡고 산뜻하게 출발했으나 정원석에게 우중간 안타를 허용한 뒤 연속 5안타를 허용, 3¼푼만 8안타 2볼넷을 내주고 4실점해 패전투수가 됐다.

KIA는 4회말 공격에서 중전안타로 출루한 이현근이 나지완, 최경환의 연속안타로 홈을 밟았으나 후속타 불발로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8회 초에는 주자 1루 상황에서 문현정-유동훈-박정규에 이어 등판한 임준혁이 안타 3개와 볼넷 1개로 3점을 허용하면서 6점차로 벌어졌다.

KIA는 8, 9회 말 찾아온 절호의 득점 찬스도 살리지 못했다. 3루수 오재원의 실책으로 출루한 선두타자 강동우가 도루에 성공하고, 나지완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해 1사 1.2루의 찬스를 만들었으나 최경환과 김주형이 들어선 김연호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추가했으나 최용규가 병살타를 치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13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두산 시범경기. 7회말 기아 발데스의 3루수 앞 땅볼 때 1루에 있던 김선빈이 2루에서 포스아웃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경기 연속 연속 멀티 히트를 기록했던 나지완은 중전안타를 기록하긴 했지만, 2개의 삼진을 보태며 경기장을 찾은 홈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4번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김주형도 삼진 2개를 포함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이날 경기에서 KIA는 8개의 안타와 5개의 볼넷으로 1점을 얻는데 그쳐 집중력 있는 공격을 펼친 두산에 패해 시범경기 3승 2패를 기록했다.

삼성엔 대구구장에서 벌어진 한화와의 경기는 돌아온 삼성의 에이스 배영수가 5이닝

동안 1실점 하며 호투해 5-2 승리를 이끌었다. 우리는 목동구장에서 처음 치러진 홈경기에서 LG에게 3-6으로 패했다. 문학구장에서 벌어진 SK와 롯데의 경기는 1-5로 롯데가 이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별회원권
저렴·확실한 회원권, 비·상공회비에서 최대 10%까지 할인
최저 100만원부터 시작
문의: 062-351-0095